

유가 자유화 6개월 평가

서 대문구 수색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으로 가는 약 1.5km의 길엔 정유 5사 폴사인을 단 주유소가 하나씩 있다. 국방대학원 입구에 있는 유공 주유소를 필두로 LG정유, 쌍용정유, 현대정유, 한화에너지 다시 유공의 순서로 늘어서 있다.

서울에서 신도시 일산으로 가는 길목인 만큼 수년전엔 끊리지 않았던 새길이고 또 제법 넓은 곳이어서 이 정도 주유소 수는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 퇴근할 때 마다 느끼는 필자의 생각이었다. 작년 까지만 해도 필자는 이 중 가장 깨끗해 보이는 한 곳을 택해 기름을 넣었다. 무료세차 혜택도 있고 쿠폰 챙기는 재미도 있어서였다. 일부 주유소에선 서비스 요원들을 내세워 '호객'도 서슴지 않았지만 단골 주유소는 잘 바뀌지 않았다.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아질 것이 없을 것이란 판



권영실
〈한국경제신문 산업1부 기자〉

단 때문이었다. 적어도 같은 가격인 바에야.

그러던 것이 올들어 양상이 달라졌다. 특히 각 정유사의 가격인하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3월 들어 '싸움'은 본격화됐다.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낸 주유소는 한화에너지 계열 서울에서 들어오는 길 중에 비교적 뒤쪽에 위치한 탓에 불리한 여건이었던 이 주유소는 한화에너지가 휘발유의 예상소비자 가격을 ㄹ

당 8백31원으로 신고했던 3월에 「지금 제일중 ㄹ당 800원」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늦은 퇴근길에도 이 주유소를 찾는 차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격 인하의 효과는 컸다.

3월 한달은 눈치만 보던 다른 주유소들은 4월 들어 가격차를 부담스럽게 여긴 듯 가격인하전에 가세했다. LG 쌍용 현대정유 계열 주유소들이 7백80원대로 휘발유값을 내렸다. 한화주유소도 비슷한 수준으로 또 내렸다. 정유사의 예상소비자 가격에 비해선 ㄹ당 40~50원을 낮춰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유업체를 출입하는 필자조차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한 곳만 단골로 거래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뿌듯한 기분으로 서울 시내보다 한 번 넣을 때 2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며 떠들고 다녔다.

서두부터 장황하게 우리 동네 애

기를 한 이유는 이렇다. 유가 자유화의 효과가 초기의 「눈치보기」를 지나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약간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다. 고양시의 경우는 서울시가 아니라는 지역적 특성도 있고, 대부분 신설주유소로서 업체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하겠지만, 분명 출혈경쟁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정유사 관계자들조차도 어느 업체할 것 없이 『렇게 싸게 팔아서 어떻게 경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 이 양상이 특정 지역, 특정 주유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들 주유소의 경쟁양상은 가격자유화 원년에 나타나고 있는 정유 5사의 경쟁패턴을 축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다.

차이가 있다면 특정 지역의 주유소가 벌이는 경쟁은 이득이 있다면 소비자가 얻는 것이요, 손해가 크다면 해당 주유소가 피를 보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정유사들의 경우는 그 규모가 큰 만큼 피해가 국민경제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3월까지 정유 5사의 환치손은 1천억원을 넘었고 유류 소비는 감소 추세에 있어서 정유사들의 올 경영수지도 작년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 분명해 보이

는 현실에서 말이다.

정유사들이 현재 받고 있는 가격이 적정한 것이냐는 문제는 사실 자세히 따져봐야 할 성질의 것이다.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 계산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러나 기존의 연동제 공식을 적용할 경우 현재 국내 정유사들이 파는 가격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휘발유부문에서 손해를

특정 지역의 주유소가 벌이는 경쟁은 이득이 있다면 소비자가 얻는 것이요, 손해가 크다면 해당 주유소가 피를 보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정유사들의 경우는 그 규모가 큰 만큼 피해가 국민경제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게 돼 있다는 것이다. 5월의 경우만 해도 1당 8백42원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통산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실제 형성된 가격은 전부 그 이하니 손해는 자연스런 것이다.

물론 회사에 따라 그 가격을 받아도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곳도

있고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는 마케팅전략차원에서 저가정책을 펼 수도 있다. 그러나 업계 전체로 볼 때는 불황기에 손해를 보면서 파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정유 5사 공히 매출 수조원의 대기업으로서 경영악화요인이 쌓여 간다면 이는 분명 나라 경제추진에서 부정적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필자의 이런 견해는 반대에 리에 무력한 것이 사실이다.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한 자유회에서 가격인하는 가장 적절한 마케팅수단이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원가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더 싸게 팔 수 있는데도 다른 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지나친 가격인하는 삼가달라는 얘기를 듣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업계 평균의 원가개념을 가지고 여력이 있는 회사까지 대충대충 넘어가자고 하는 일은 과거에 분명히 있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화 이전에는 필요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가격이 자유화됐고 원가경쟁력과 충분한 공급능력도 있는 회사를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물가당국이 아니라 누가 나서더라도 이 추세를 돌이킬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난 6개월간의 자유화의 부작용이 업계 내부에서조차도 여

전히 컨센서스를 형성하지 못한 채 7월부터 완전 자유화되게 됐다는 점이다. 모 회사 대표는 언론과 접촉한 자리에서 올 하반기 부터는 진정한 가격자유화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회사 대표도 더 이상 끌려가진 않겠다고 선언했다. 바야흐로 휘발유의 대회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물론 매일 매일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필자같은 언론 종사자들은 휘발유 가격인하건 같은 것은 가장 즐거운 소식이다. 매일 매일 뉴스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은 사실 내리기가 어렵다.

이 모든 것은 공급과잉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보인다. 물량이 남다 보니 우리 정유사들의 피와 땀의 결과는 이웃만 살찌운다. 일본은 정제시설을 확충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값싼 경질유를 여유있게 수입해 쓸 수 있게 됐다. 경쟁국의 에너지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하면 지나친 과장일까. 국가경제 전체로 보아 이만저만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수급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증설을 추진했던 회사나 이를 허가해준 정부당국의 공동책임이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도 아니다.

어쨌든 자유화는 시작됐고 온갖 부작용을 안은채 완전 자유화를 코앞에 두고 있다. 가격 자유화 이후

생겨난 재미난 풍속이 있다. 월말마다 통산부에서 이뤄지는 눈치작전이 그것이다. 각사 영업담당들은 매월말 다음달부터 적용할 경질유 값 신고서를 갖고 통산부에 모인다. 대부분의 경우 휘발유 가격은 공란인 채이거나 채워놓았지만 사장의 결재가 빠진 것이었다고 한다.

마치 대학입시원서 접수처럼 마

그러나 업계 전체로 볼 때는 불황기에 손해를 보면서 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정유 5사 공히 매출 수조원의 대기업으로서 경영악화요인이 쌓여간다면 이는 나라 경제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감시간에 압박해서도 최고경영자의 결재를 받지 못해 휴대폰을 열어놓은 채 통상산업부에서 눈치경쟁을 벌여야 했던 실무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대형수주 입찰경쟁도 아닌데 말이다.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일이다. 세계 메이저를 꿈

꾸는 우리 정유사들의 덩치에도 맞지 않는다. 책임질 곳은 많다. 모업체 관계자는 『휘발유값에 너무 민감한 언론과 소비자, 물가당국이 이런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활시위는 정유사들이 당겼지만 싸움은 일선 주유소에서 터지고 있다는 것이다. 잘해 불려고 싸웠다가 크게 다친 병사(주유소)들이 장군(정유사)을 원망하는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사병들끼리 군번을 놓고 감정 싸움을 할 때는 대대장도 말릴 수 없는 게 군대의 생리다. 휘발유리는 어찌 보면 작디작은 시장을 놓고 전국적인 싸움이 터지는 일은 아무리 봐도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영악화로 주유소들이 연쇄부도를 낼 경우 휘발유 가격인하전은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도 있다. 모업체 관계자는 답답해선지 이런 말을 했다. 『왜 싸울려면 높은 가격대에서 싸우지 낮은 가격대에서 싸워서 같이 피를 보느냐』고

끝으로 고백할 것은 필자로서도 이 민감한 문제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등유 경유 병커유 윤활유 등도 따져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어쨌든 유가자유화 원년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 예상대로 진통의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 추세가 본격화될 하반기가 더욱 걱정이다. ☯